

독일 캐럴  
배진구 역사

조금 빠르게

1. 거저나 륙별아 한이가 밤여세  
 2. 거저나 륙별아 한이가 밤여세  
 3. 거저나 륙별아 한이가 밤여세  
 어탄죄 듐생악 이한에

흘구가 어세득 진주찬 거알마 륙려음 한준을 이저열 밤별고 하천사 흘사랑 엔의의 광노노 채래래 도도를

찬우부 란령르 하차면 네네서 평탄얼 화생마 를을나 전알위 하리대 는는한 천찬희 사란생 의한이

노별신 래빛가 줄어차 겁둠가 지을운 않밝마 은히구 차는간 누광탄 구명생 인이이 가여여

만민아정성된마음빛으로여  
항구를알리는불약이하며  
참되살도록속하

목자리를본받아어서가세  
우리맘비열추고어깨우아서소가세  
마음을열고나와아가세

배들래휩성밖에주의허락하신  
질못을깨달아용서와찬미를  
성자의탄생을만민의구원을

아기예수조배가세  
드리도록비추소서  
어둔땅에알려주세